

“더러운 곳에 머무는 자가 어찌 청정함을 알겠는가?”

<38> '용서정토문'의 왕일휴(王日休) 거사

송대 불교는 남종(南宗)의 오가칠종(五家七宗)이 주류를 형성해 가히 '선학의 황금시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조사선의 기치 아래 한편으로는 정토(淨土) 사상이 민중으로부터 널리 유행했다. 이는 조사선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학에서는 사상적으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갖춰져 있다는 '불성론'과 모든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다는 '본각(本覺) 사상과 결합시키고, 나아가 도(道)의 무소부재(無所不在)를 강조한 노장사상과 일체(一體)를 이루면서 이른바 '자성(自性)' '자심(自心)'이 '본래 온전하게 이뤄져 드러나 있음[本來現成]'을 완벽하게 논증했다. 이렇게 '본래현성'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가 현현한 세계이고, 바로 '불국토(佛國土)'이다.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정토'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일과로 삼아 정진했다. 거사는 소흥(紹興) 30년(1160)에 <대아미타경> 2권, <대정장> 12책 수록을 편집했다. 이는 <무량청정평등각경(無量清淨平等覺經)>(支婁迦讖譯), <무량수경(無量壽經)>(康僧鎧譯), <아미타경(阿彌陀經)>(支謙譯), <무량수장엄경(無量壽莊嚴經)>(法賢譯)의 4분을 종합해 3년에 걸쳐 교감한 것이다. 또한 소흥 신사(辛巳年)(1161)에 친구 집에 머물면서 <용서정토문>을 찬술했다. 거사는 사대부로부터 백정, 거지, 하인, 기녀에 이르기 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토법문에 귀의하도록 했다. 왕 거사는 아주 쉬운 말로 마치 아버가 자식을 가르치듯이 간곡하게 설법했다고 한다. 거사는 입적 3일전에 여러 도우(道友)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힘써 정업(淨業)을 닦으라고 권했다. 입적 당일에는 후학들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마치고 삼경에

'용서정토문' 찬술 백정·거지 등에 정토 법문

정토사상 일반 민중에 더 없는 안식 제공

'정토'는 이른바 '유심정토(唯心淨土)'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본래현성'을 강조하고 '뒤음이 없는 뒤음[無修之修]'을 논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생의 '어리석음[迷]'과 '깨달음[悟]'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중생의 '마음' 상태에 따라 '지금 이 자리'가 '정토'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려 갑자기 큰 소리로 "아미타불"을 수차례 외치고 "부처님께서 나를 맞으러 오셨구나!"라고 하고 선 채로 입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토'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왕일휴(?~1173) 거사이다. 그의 <용서정토문>(전12권, 본래 10권이었지만 거사의 입적 후, 후인들이 2권을 추가함. 대정장>47책 수록)은 바로 왕 거사의 사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저술이다.

거사는 현실의 삶을 "모두 물거품과 같고, 생멸이 무상(無常)함"으로 파악하고 "일이 뜻에 맞을 때에도 진실로 괴로움일진대, 대부분은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며 인생을 괴로움의 아늑이 없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는 바로 정토법문의 출발점이다. 거사는 다시 육도윤회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심지어 "비록 선업(善業)으로 천상과 인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보(福報)가 다하면 구업(舊業)으로 윤회하여 표류에 빠져 벗어날 기약이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직 서방정토(西方淨土)가 있어 제일(第一)되게 윤회(輪廻)를 조탈하는 절경(絶徑)이 된다"고 귀결시켰다.<용서정토문> 권3

장효상(張孝祥)의 <용서정토문·서(序)>와 연지주공(蓮池株宏)의 <왕생집(往生集)>, 팽제청의 <거사전>과 팽희숙(彭希淑)의 <정토현성록(淨土賢聖錄)> 등에 거사의 일생이 간략히 소개돼 있다. 거사는 여주(盧州) 용서(龍舒)사람으로 자(字)는 허중(虛中)이다. 고종(高宗) 때에 진사(進士)에 급제했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거사는 경사(經史)에 널리 통달했으나 "이것은 다 업습(業習)으로 구경법(究竟法)이 아니므로 나는 서방(西方)으로 귀의한다"며, 그 이후로 오로지 열불(念佛)에만 전념했다. 나이 60에 베투와 소식(蔬食)을 하며 매일 1000배(拜)하는

이르러 갑자기 큰 소리로 "아미타불"을 수차례 외치고 "부처님께서 나를 맞으러 오셨구나!"라고 하고 선 채로 입적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평생 정토법문에 전념했음이 짐작된다. <용서정토문>에는 거사의 정토사상이 상세히 논술돼 있으므로 그를 통해 거사의 정토사상의 특질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사의 정토사상은 당시 조사선에서 제시하는 '유심정토'와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왕 거사의 정토사상은 철저히 '신앙'을 바탕으로 했다. 거사의 정토사상은 바로 아미타불과 서방정토에 대한 '기신(起信)'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는 <용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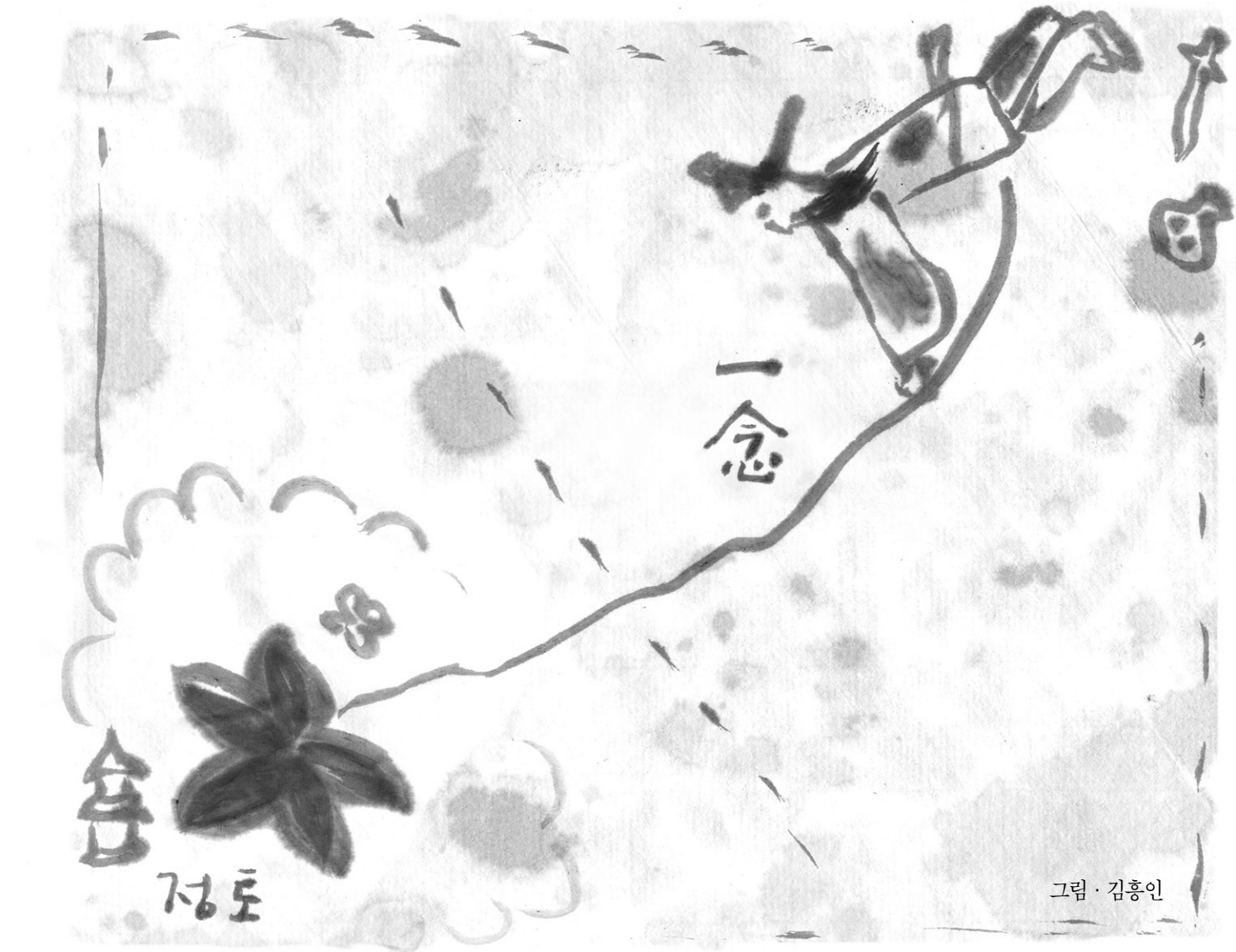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토문>의 제1권이 '정토기신(淨土起信)' 9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으로부터 충분히 짐작된다.

거사는 '정토'를 일반인들이 의심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갑자기 정토의 영상(影像)에 대해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구애돼 눈앞에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면 물리칠 뿐이다.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 머무는 자가 어찌 넓고 청정함을 알겠는가?"라고 파악했다. 거사는 이러한 '불신'을 '기신'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전을 인용하고, 또한 아주 세세하게 일상사에 빚대어 친절하게 설복하려 한다. 거사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정토의 설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하물며 예로부터 지금 까지 이를 수행해 감응한 자가 매우 많았다"(권1)라고 설득이 있음을 말했다. <용서정토문>의 제5권에서 '감응사적(感應事迹)' 30편을 실어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6권에서는 '특별히 권하여 깨우치게 함[特爲勸喻]'의 37편을 실어 정토사상에의 귀의를 유도했다.

거사는 자신의 정토사상에 확신을 갖고 선에서 말하는 '유심정토'가 비슷하지만 아닌 '사이비(似而非)'라고 했다. '유심정토'를 단지 '도리[理]'의 측면에서 봤기 때문이다. '자취[迹]'의 측면으로부터 본다면, '극락세계가 실로 있음'이고, 이것이 거사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유심정토'는 단지 이론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성취할 수 없는 '이상(理想)'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거사가 비판하는 것은 바로 '오직 마음[唯心]'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고원(高邈)한 세계를 설정하여 '마음타령'을 했다는 것이다.

(佛力)으로 능히 죄악을 소멸할 수 있고, 능히 정토에 왕생할 수 있음(권3)을 가르쳤다. 이는 '자성자도(自性自度)', '자심해탈(自心解脫)'을 강조하는 조사선과 역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거사는 '극락세계가 실로 있음'에 대한 '믿음[信]'을 근간으로 해 "믿는다는 것은 일념(一念)이다. 만약 사람이 살아있는 때에 마음과 생각[心念]이 정토에 가고자 원하면 몸이 곧 감을 따르다"며 "일념(一念)이 정토에 있음에 필연코 정토에 태어남"(권1)을 강조했다. 이렇게 '심념'과 '일념'에 정토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하거만 한다면 "비록 죄악(罪惡)이 있음이나 또한 정토에 태어나지 못함이 없다"(권2)는 것이다. 거사는 또한 사람들에게 "불력

거사의 '유심정토'에 대한 비판은 당시에 '염불정토'의 사상이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을 확고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조사선의 쇠퇴를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사상적 흐름에도 점차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정토사상은 힘든 삶을 영위하는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더없는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칭명염불(稱名念佛)'의 유행은 점차로 중국불교가 사상적으로 통속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했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왕일휴 거사와 <용서정토문>이 일으킨 중요한 작용이며,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일면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h3>불자 정보</h3> <p>739호 TEL 02) 2004-8213 (직) 732-1522 FAX 02) 737-0696</p>	<h3>포교당 (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p>016-850-1208</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익산시 ● 법당: 20평, 요사 30평 ● 대지: 150평 ● 가액: 9천 5백만원 ● 인근 국가공단 100만평 한방특구공단 조성 차공 교통편리한 사통오달 포교적지 <p>011-811-5466</p>	<h2>주지직인 무효공고</h2> <p>사찰명: 법 흥 사 주소: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234</p> <p>위 사찰의 주지 직인은 2009년 6월 17일자 이후로 사용된 것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p> <p>불기 2553년 7월 1일</p> <p>재단법인 선학원 법 흥 사</p>	<h2>스님! 병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h2> <p>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p> <p>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속식제공 <p>★ 개인 특별지도 ★</p> <p>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p> <p>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주 정락 합장</p> <p>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p> <p>(사)유마 최면 연구소</p> <p>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경기도 안성시 금방면 한우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p>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p>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p>	<h3>포교당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강화군 내가면 바다 보이는 황정 포구 산밭 ● 법당, 삼존불, 금사경호불, 신중·산신탱화, 방3, 거실, 화장실겸 욕실, 마당 넓은 텃밭 ● 가액: 보증금 50만원 월15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p>010-5719-6861</p>	<h3>사찰 및 암자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랑이 깊은 ● 1715평 ● 가액: 평당 5만5천 원 <p>010-4130-0606 (주인직접)</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진해시 ● 입법당: 20평, 대지 300평 ● 요사채 별도 1동, 주차장 화장실(현대식) 창고2 ● 법당 및 기타시설 완비 ● 물만 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p>010-2570-9566 055)545-9640</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함안 ● 대지 140평, 텃밭 28평, 법당 25평 ● 요사채 30평(방4), 스님방 1, 창고 大, 小 2개, 건물 90평정도 ● 화장실 겸 샤워실2, 부엌겸 거실1, 바깥근부엌, 1, 마당까지 주차가능 ● 가액: 1억 3천만원(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 분만 전화요망 주지스님 건강 관제로 '급'양도 <p>010-9466-1191</p>	<h3>토굴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 양평 ● 대지: 205평 ● 건물: 56평(1층 33평, 2층 23평) ● 황토방, 6, 7월 초 신축완공 ● 뒷산 계곡 석축단장, 순수황토 벽돌 목조 기와지붕, 라운드로형으로 예쁘고 웅장하게 잘 건축된 별장식 ● 비구니스님 수행도량으로 적합하며 합의하여 조금 싸게 양도할 수 있음 ● 가액: 4억 3천 <p>010-6438-3561</p>		